

Market Conditions

『Monthly』

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

최 성 수 대리 / 010-3144-2110



K2 LOGICS



Contents

01. 항공

02. 해상

03. 물류업 News

04. 무역업 News

05. 해운업 News

06. 기타 ISSUE



구 분	시 황	특이사항
<div>공 급</div> <div>항 공</div>	<div> <p>◆ 대한항공, 12월1일부터 인도 델리 신규 취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도 북부 무역·상업의 중심지인 델리에 신규 취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5회(화목금토일) 정기편을 운항 출발편(KE481) PM 12:45 인천 출발 → PM 6:20 인디라 간디 도착 복편(KE482) PM 7:40 델리 출발 → 다음날 AM 5:50 인천 도착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출처 : KSG></p> </div> <div> <p>◆ 에어버스 신형 화물기 '벨루가 XL' 생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편당 적재중량 53t 최대 4,000km non-stop운항 / 2019년 본격 운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형체는 거대 고래모양 / A330화물기 기반 설계 / 적재중량 12% 확대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출처 : 카고뉴스></p> </div>	
	<div> <p>◆ 대한항공, 3분기 영업익 4476억 '분기 사상 최대'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진해운 관련 불확실성 불식 및 부채비율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한항공이 분기 사상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 영업이익 4476억원은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매출 영업 호조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4.7% 증가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출처 : KSG></p> </div> <div> <p>◆ 경기 불황에도 저비용항공사 사상최대 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알뜰여행족 증가·유가 하락에 저가항공 '전성시대'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, 3분기 매출·영업익 기록 경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빅3'인 제주항공과 진에어, 에어부산은 올해 3분기 사상 최고 실적 기록 유가는 올 상반기부터 배럴당 40~50달러 선을 유지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출처 : 항공뉴스></p> </div>	

구 분		시 황	특이사항 (시황 상세)
해 상	아시아	<div>◆ 한중항로/ 1년만에 운임인상 칼 빼들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수출물동량 상승세에 성공 가능성 높아- 운임공표제 도입을 배경으로 한 강제적인 인상이 아닌 선사들의 자발적인 인상-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12/1부로 한국과 북중국 5개항 간 해상항로 운임을 인상</div> <div><출처 : 코리아쉬핑가제트></div>	<div>◆ 중남미 운임 추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9월부터 뚜렷한 하락세- 상해발 산투스항 운임 11.5%급감- 국경절 이후 일시 상향- 선사들의 꾸준한 GRI의지- 동안 : 2천중반 / 서안 : 2천후반</div> <div><출처 : 코리아 쉬핑 가제트></div>
	중남미 북미	<div>◆ 남미항로 12월 두 차례 운임인상 단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AWCSA(아시아-남미서안항로) 멕시코,중남미 서안항로 운임 인상- 12/1부터 TEU당 750달러 / 15일부터 500달러 각각 인상- ACTA(아시아-카리브해항로)도 1일부터 1,050달러 / 15일부터 1,500달러 인상</div> <div>◆ 중남미항로/ 계절수요 특수 끝나고 소강상태 진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2월께 연말 물량 밀어내기 기대- 소식률(선복대비 화물적재율)남미 동안은 100% / 서안은 90~95%대를 기록- “남미 동안은 배정받은 선복 할당량이 점차 줄어들어 오른 운임이 유지될 것”- “서안은 끊임없이 GRI를 시도하고 있지만 경쟁 노선이 많아 운임 회복이 쉽지 않다”</div> <div><출처 : 한국해운신문></div>	<div>◆ 국제유가 현황<div>(단위 : \$/ 배럴)</div><div>WTI 11.25. 46.06 ▼ 1.90(-3.96%)</div><div>두바이유 11.25. 43.95 ▼ 0.19(-0.43%)</div><div>브렌트유 11.25. 47.24 ▼ 1.76(-3.59%)</div></div> <div><출처 : 뉴욕상업거래소(NYMEX) - WTI, 두바이 런던국제거래소(ICE) - 브렌트></div>
	공 급	<div>◆ 현대상선, 하이퐁·다낭 서비스 광양 첫 출항</div>	<div>◆ 베트남 시장 선점과 국내 화주의 지속적인 물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신규 서비스를 개설</div>
	전 망	<div>◆ 내년 해운시장 '북미 호조' vs '유럽 부진'</div> <div>- KMI 해운전망대회, 유가상승 운임인상에 호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→ 벌크선 시장 내년 상승세 뚜렷</div> <div>- 유럽선사들의 M&A도 눈여겨 볼 대목</div> <div><출처 : 카고뉴스></div>	<div>◆ 해운 빅5의 선복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5~47%대를 보이다 올해 9월 현재 54%로 대폭 확대</div> <div>→ 미국 원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석유수출국 기구(OPEC)이 지난 9월 말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한 것이 배경</div>

구 분	내 용
-----	-----

물류업 이슈

◆ 세계의 물류중심으로 부상하는 ‘이란’

주요 물류기업 연이어 서비스 개발에 박차

경제 제재조치 해제에 따라 ‘이란의 물류시장’이 활개를 띄고 있다.

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라인은 5년 만에 이란에 주간 정요일 서비스를 재개한다

이 선사는 아랍에미레이트 제베알리에서 이란 반다르아바스 간을 주간 정요일 형태로 피더 서비스를 시작한다.

머스크는 또 이 피더 서비스와 연계된 유럽·서지중해·흑해 서비스(ME1, ME2, ME3), 아시아 서비스(AE1, AE11, AE15), 동남아·홍해(Horn of Africa), 동 아프리카·남서 아프리카(Masika Express, Mesawa) 서비스와 각각 연계해 서비스할 계획이다.

이란은 인구 8,000만 명에 달하는 중동 2위의 인구 대국이다. 세계 가스 매장량 2위, 석유 매장량 4위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.

또 인구 4억 명에 달하는 광대한 CIS 국가들의 게이트웨이에 위치하고 있다.

머스크라인은 현재 이란의 출도착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70만 FEU정도로 분석했다. 향후 이란 GDP는 2년 간 5.8~6.7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에따라 컨테이너 물동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.

DHL도 이란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.

◆ 2자물류기업, 실적악화 불구 내부거래 ‘상승곡선’

7개 기업 중 1곳만 순이익 개선

올해 3분기 2자물류기업들 고전을 면치 못함

대부분 기업들이 영업이익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음

현대·삼성, 내부거래액·영업효 증가

인터지스·롯데·현대로지스틱스 영업효 급감

2016년 3분기 주요 2자물류기업 영업실적

[단위 : 원, %]

구분	매출액		증감	영업이익		증감	당기순이익		증감
	2016년	2015년		2016년	2015년		2016년	2015년	
현대글로벌비스	3조598억	3조1068억	-1.5	1323억	1203억	9.9	1811억	-207억	흑자전환
삼성SDS	9650억	1조158억	-5	732억	583억	25.5	491억	707억	-30.5
롯데로지스틱스	8297억	7812억	6.2	96억	122억	-21.3	66억	90억	-26.6
현대로지스틱스	2372억	2429억	-2.3	-23억	32억	적자전환	-4억	106억	적자전환
한익스프레스	1158억	1071억	8.1	35억	50억	-30	24억	37억	-35.1
인터지스	1102억	1553억	-29	9억	35억	-74.2	-6억	21억	적자전환
대림코퍼레이션 (해운물류부문)	840억	1171억	-28.2%	2억	71억	-97.1%	-26억	10억	적자전환

자료 : 금융감독원

<출처 : 코리아 쉬핑 가제트>

<출처 : 코리아 슈핑 가제트>

구 분	내 용	
무역업 이슈	캐나다, 석탄화력발전 조기 퇴출	인도네시아, 시멘트 공급과잉 심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캐나다는 청정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기로 함 ▶ 캐나다 환경부장은 현재 전기 생산의 80%를 차지하는 수력, 풍력,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원의 비율을 90%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함 ▶ 캐나다의 화력 발전 비중은 2000~2014년 기간 절반으로 줄었으며, 현재 34개의 화력 발전소가 운영 중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도네시아 국영 시멘트 제조업체인 PT.Semen Baturaja는 내년 상반기에 남부 수마트라에 제 2공장을 가동할 예정임 ▶ 이번 공장의 연산 능력은 185만톤으로 알려졌다으며, 현재 인도네시아 시멘트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▶ 인도네시아 시멘트협회는 올해 시멘트 소비량을 4,590백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나, 생산능력은 9,000만톤으로 공급과잉 상태임
	필리핀 반군, 케이프선 공격	중국, 석탄 수입 톤-마일 감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(ReCAPP)에 따르면, 11/20일 필리핀 Sulu Sea을 지나던 케이프선이 필리핀 반군으로 추정되는 단체로부터 공격을 당함 ▶ 해당 선박은 호주 Port Hedland항을 출발하여 중국 Qingdao로 향하는 케이프선으로 본선 승무원들의 대응으로 공격은 실패로 끝남 ▶ ReCAPP에 따르면, 올해 3월이후 동 수역에서 11차례의 공격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소형선을 대상으로 하였으나, 대형 상선으로 확대된 점을 우려함 ▶ 동 해역은 서호주-중국간 최단거리 항로로 선박 운항에 주의가 요망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BIMCO에 따르면, 중국의 석탄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, 호주와 인도네시아산 수입량 증가로 톤-마일측면에서 운임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▶ 근래 석탄 수입량이 많았던 2013년의 경우, 수입량 326백만톤의 23%가 호주와 인도네시아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었음 ▶ 2014-2015년동안 수입량은 각각 291백만톤 및 204백만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, 올해 1-10월동안 수입량은 201백만톤으로 증가하였음 ▶ 그러나, 올해 호주/인도네시아 이외 지역으로부터 수입량은 16%에 불과하여 석탄 수입량 증가 효과는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
	독일, NordLB 대규모 적자 예상	파키스탄, 해체선 폭발 사고이후 작업 중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독일 선박금융전문 은행인 NordLB는 올해 세전기준 손실규모가 10억 유로가 넘을 것으로 전망함 ▶ 동 사는 현재 약 170억 유로 상당의 선박금융 여신을 보유 중으로 올해 말까지 160억 유로로 감축할 예정임 ▶ 해운 불황 장기화가 전통적인 선박금융 기관의 손실로 이어지면서 신규 대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세계 3위 규모의 해체 야드인 파키스탄 Gadani 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작업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▶ 11/1일 1982년산 150,000DWT급 탱커선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0여명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▶ 사고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해체선 가격은 보험세를 유지하며 사고 영향력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음

구 분	내 용
해운업 이슈	<p>◆ 대한해운, 한진해운과 미주항로 영업양수계약 체결 → 내년 1월5일 마무리...인수가 370억</p> <p>➢ 대한해운은 21일 한진해운 태평양노선 관련 영업 및 운영고객관리정보,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지역 7개국 소재 자회사, 물류운 영시스템 등의 물적 자산, 인적 조직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인수 예정일은 내년 1월5일. 인수가는 현금 370억원 이다. 대한해운은 입찰보증금 5억원 포함 계약금 37억원을 선지급한 뒤 최종 인수일에 잔금 333억원을 치를 예정이다. 인수대금 조 달은 자체 자금과 SM(삼라마이더스)그룹 관계사 자금을 빌리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. 대한해운은 내년 1월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 어 한진해운 영업양수를 결의할 예정이다.</p> <p>회사 관계자는 "한진해운 미주 아시아 영업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벌크선 사업, 탱커선 사업 외 컨테이너 사업을 거느린 종합해 운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"며 "이번 자산 인수를 통해 벌크선 사업과 컨테이너선 사업의 수평적 결합을 추진하겠다"고 말했다. 한 진해운과 대한해운은 22일 오전 7시19분부터 같은 날 오전 9시30분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출처 : 코리아 쉬핑 가제트></p> <p>◆ 동서항로, 유럽경제 회복지연 '컨' 물동량 상승세 둔화 →유럽 수출항로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 커버하지 못해</p> <p>➢ 유럽 수출항로는 1.5% 증가했으나,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커버하지는 못했다. 8월 말 한진해운이 경영 파탄한 결과, 북미 수출항 로 시황은 회복됐으나, 물동량의 낮은 성장이 정기 컨테이너선 업계의 걸림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.</p> <p>북미 수출항로는 올 들어 기세에 먹구름이 보인다. 1~3월은 전년 동기 대비 7% 증가로 순조롭게 출발했지만, 4~6월은 마이너스, 7~9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안정감이 없다 2008년 가을에 일어난 리먼쇼크 후의 경제 침체를 지나, 북미 수출항로는 해마 다 증가율이 높아졌다. 2014년은 통년 6.4% 증가한 1472만2000TEU의 물동량으로 과거 최고에 달했으며, 이어 2015년은 2.3% 증 가한 1505만7000TEU로 2년 연속 기록을 갱신했다.</p> <p>유럽 수출항로는 2015년 통년 계속된 물동량 감소 경향에 제동이 걸렸다. 1~9월의 누계 화물량은 1.5% 증가한 1137만5000TEU였 다. 다만 2015년 동기는 4.2% 감소로 대폭 하락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출처 : 카고 뉴스></p>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<div>◆ 美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, 韓 물류업계 득실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“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.” / 현실화되면 부정적 요인 더 많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➢ “보호무역주의 강화, 아직은 먼 얘기”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특히 물류업계는 미국과 멕시코, 남미 등 해외거점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</div> <div><table><tr><th colspan="4">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</th></tr><tr><th>대선 공약</th><th>미국 경제 파급 영향</th><th>한국 경제 파급 영향</th><th>종합평가</th></tr><tr><td>일자리 창출</td><td rowspan="2">-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-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</td><td>- 미국의 소비재, 자본재 수요 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</td><td>+</td></tr><tr><td>인프라 투자</td><td>-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</td><td>▲</td></tr><tr><td>통상 정책</td><td>- 보호무역주의 강화 - 중국 견제 - 달러화 약세 용인</td><td>- 통상 마찰 증가 -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, 우 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-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</td><td>-</td></tr><tr><td>에너지 정책</td><td>-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-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확 적 리스크 확대 용인</td><td>- 경성수지 흑자세 지속 - 유가(변동성) 리스크 확대</td><td>▲</td></tr><tr><td>세제 개편</td><td>- 산업경쟁력 강화</td><td>- 산업 경쟁구조 심화 -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</td><td>-</td></tr></table><div>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 주 : +는 긍정적, -는 부정적, ▲는 중립적용 의미.</div></div>	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				대선 공약	미국 경제 파급 영향	한국 경제 파급 영향	종합평가	일자리 창출	-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-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	- 미국의 소비재, 자본재 수요 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	+	인프라 투자	-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	▲	통상 정책	- 보호무역주의 강화 - 중국 견제 - 달러화 약세 용인	- 통상 마찰 증가 -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, 우 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-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	-	에너지 정책	-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-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확 적 리스크 확대 용인	- 경성수지 흑자세 지속 - 유가(변동성) 리스크 확대	▲	세제 개편	- 산업경쟁력 강화	- 산업 경쟁구조 심화 -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	-
	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선 공약	미국 경제 파급 영향	한국 경제 파급 영향	종합평가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자리 창출	-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-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	- 미국의 소비재, 자본재 수요 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	+																									
인프라 투자		-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	▲																									
통상 정책	- 보호무역주의 강화 - 중국 견제 - 달러화 약세 용인	- 통상 마찰 증가 -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, 우 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-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	-																									
에너지 정책	-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-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확 적 리스크 확대 용인	- 경성수지 흑자세 지속 - 유가(변동성) 리스크 확대	▲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제 개편	- 산업경쟁력 강화	- 산업 경쟁구조 심화 -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	-																									

감사합니다

